

“붉은 노을 천년 갯바위 어루만지고...”

바다 산 꽃 어울린 한쪽의 그림, 사람들 손짓

新 목포관광 여행

<7> 입암 반 조

관광으로 목포경제를 살리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투데이에는 '관광목포'의 핵심역량을 찾자는 취지로 '신목포관광 여행'을 연재한다.



갯바위에 얽힌 전설

아버지의 관이 바다로 빠지자 청년은...

바닷가 갯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아버지를 모신 가난한 소금장수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푸구에 실려오는 소금을 받아 인질 마을에 팔아서 가나를 이어갔다. 가난하여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청년의 아버지는 날로 병환이 악화되어 갔다. 청년은 안타깝기만 했다.

그는 스스로 큰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약값을 충분히 벌어야 집에 돌아온다고 다짐했다. 힘에 겹도록 소금을 팔아지고 떠났다. 그러나 딱하게도 소금을 사라는 사람이 없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청년은 날뽀아래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유해 보이는 길가집을 찾아 들었다. 그 집주인은 소금난 구두쇠로 한 달 동안을 일하고 품삯을 달라는 청년에게, "그 동안 써먹은 밥값도 못한 주체에 품삯은 무슨 놈의 품삯이냐"며 쫓아냈다. 아버지 약값을 구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청년이 길가터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

그 마을을 지난 먼 도성이 청년을 보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기에 그대 한숨을 쉬느냐고 물었다. 청년은 자초지종 그의 처지를 말했다. 얘기를 들은 도성은 크게 낯색이 변하며 청년을 꾸짖었다.

"한가지만 생각했지 깊은 생각이 부족했네. 자네가 약값을 마련하겠다고 타락을 전전하고 있는 동안 병든 아버지는 누가 돌보았겠으며 그 돈에야 죽었다면 애써 약값을 마련했다 한들 무슨 소용있겠느냐"

그때서야 병든 아버지를 생각한 청년은 부러부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물보라 이없이 깨어난 사체가 되어 있었다.

청년은 그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이생에서 편히 지내지 못한 아버지지만 저승에서나 편히 쉬게하는 것이 그의 도리라 생각하고 관을 메고 병당을 찾아나섰다.

갯바위는 예부터 말 천국으로 병당이 있고 안중탕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산을 헤매던 청년은 지금의 갯바위 곁에서 앓을 바라보니 시원해졌다. 그지없고 양치기마르르이 이곳에 묘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관을 바닷가에 놓고 묘를 파던 청년은 그만 실수를 저질러 곁에 둔 관도 꺼내들었다. 관이 마구잡이 굴러 바닷속으로 휩쓸려지고 말았다. 뱃을 잃은 청년은 행여 관이 떠오르지 않을까 기다렸으나 영영 떠오르지 않았다.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영영 올던 청년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높이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말았다.

그 일이 있던 뒤로 이곳에 아버지 바위와 아들 바위가 솟아 오르고, 아들은 죄진 돌이타 하늘을 대할 수 없어 쇠깃을 쓰고 있었다. 이 쇠깃은 넓이가 6m 가량이고 한쪽 것이 2m 가량이나 된다. 청년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파던 바위의 뒷 부분은 바위가 날려 쪼갠 탓인지 돌이 자라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은 청년이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어는 이 바위를 중배위라 부르는 이도 있다. 아라한과 부처님이 영산강을 건너 이곳을 지날 때 쉬던 자리에 쓰고 있던 쇠깃을 놓고 간 것이 갯바위가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지금 이곳은 이제 집안의 선산이 되어 여러 개의 묘가 들어서 있다.



가파른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림자 등산로 야생화 가득 시원한 바다 한눈에

살수로 바닷가에 빠뜨리고 자살을 했던 청년. 그리고 죽어 바다를 바라보는 바위를 변한 아버지와 아들. 붉게 물든 노을은 파도가 되어, 만년 갯바위가 되어, 한송이 꽃이 되어, 갈매기가 되어... 어느새 하나가 되고 만다. 큰 바위는 8m, 작은 바위는 6m 정도이다.

하당 평화광장 인근 위치

바다 건너 앞에는 목포평화의 하얀 대아산, 오른쪽으로는 삼화도와 유달산, 왼쪽으로 영산강이 보인다.

자금은 입암산 옆에 아파트가 가득 있지만, 저층주택 갯밭이 매달려 신도심이 형성되기 전인 60년대만 해도 입암산 앞에는 목포의 변두리에 위치한 시골이었다. 연중 뱃배를 지나 목길을 타고 가면 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면 입암산의 가파른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입암산에서 갯바위로 내려가는 등산로 중간쯤 되어서 대문처럼 양쪽에 비티고 선 바위를 볼 수 있다.

되어 있다. 입암산의 정상에서 보면 갯바위는 마치 바다를 향해 달려 나가는 듯 빼죽 나간 발톱 형상이다. 영락들이 옥수리의 긴 발톱 형상이다.

태양에서 색의 황연

정상에는 간단한 철제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몇 년 전 한 시민단체가 자연을 훼손한다며 반대를 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누가

만들었을까. 한반도 모양의 조그마한 꽃밭이 조성되어 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태양 에너지가 대기의 여러 미세한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서 햇빛은 구름과 뒤섞여 색의 황연을 보여준다.

저는 해가 아름답고, 입암산의 가파른 정상에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와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정태영기자

목포가 자랑하는 곳이 어디이랴. 오늘 찾아가는 길은 전설이 얽힌 갯바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성이 자자한 갯바위만 기억할뿐, 그 전설을 품고 있는 산의 이름이 입암산인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입암산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 남농기념관 등이 위치한 문화의 거리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높이가 120m의 산이다. 이 산 남남쪽 바닷가에 갯을 쓰고 있는 듯한 바위가 있어 이를 갯바위라 하는데 갯바위가 있는 산이라 하여 갯바위산, 입암산이라 하였다.

목포 팔경에는 입암반조라 하여 저녁 노을에 붉은 바닷가의 갯바위와 바위 절벽으로 된 입암산에 반사되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한때 입암산과 갯바위'로 묶여지는 전설과 산은 목포 말고도 전국에 몇 곳이 더 있다. 사람이 갯을 쓴 것 같은 바위를 갖고 있는 산을 입암산이라 부른다. 산에 있는 갯바위가 마치 갯을(갯물) 뿌듯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갯입(갯, 바위입)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읍에서 장성 쪽으로 내려가다가 갈매 근저 인쪽에 위치한 산이 입암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목포의 입암산과 갯바위'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독특하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습한 전설을 안고 있다.

자들도 갯바위에 밧가 소원을 기도한 사람들이 남긴 붓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파개에도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정네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빌었던 무수히 많은 편지기도 하다.

파도가 치는 갯바위 옆에 앉아 전설 속에 빠져본다. 병든 아버지를 남겨놓고 떠나지만 했던 가난한 소금장수. 그리고 씩씩한 시신으로 변한 아버지, 뒤늦게 목 놓아 울었던 청년. 아버지의 관마저

부드러운 빵맛과 풍무한 토핑, 피자지의 참맛을 느껴보십시오.

어린이 고객 감사 이벤트

15,000원 이상 구매고객
(전기 or 태너생울혼)

11,000원 이상 구매고객
(요기물 or 화물생울혼)

슈프림(4인용)피자+500ml 9,900원

14,500

6인용 슈프림 피자+콜라 1.5

체인점 문의
011-621-2859

- 하당점 281-4546
- 북항점 279-2228
- 삼학점 244-5757
- 진도점 544-2411
- 해남점 533-4959

30분 배달 보증, 초고속 배달 서비스